

기 도 인 도 자

찬 송 . . . 559장 (통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 . 다 갈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 션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 고 동기들 사랑에 몽 처잇 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 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믿음 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 라
기쁨 과 설움도 같이 하 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라
한상 에 둘러서 먹고 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라

후렴
고마워 라 임마누 엘 에 수만 섬가는 우 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마 침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6년

추석가정예배



“전도! 사랑의 시작입니다!”

(고전 1:21 & 딤후 1:3)

(예배 순서지는 개역개정성경 • 새찬송가를 사용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포교회

15859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13

www.gunpoch.org / ☎ 031-452-1044

원로목사 서일규 위임목사 김철웅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예배로부름 인도자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말하신 것이라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01장 (통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통일 460)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
은혜와 사랑 Kyo made mamdore kitarishi wagami
 T. Sasaki, 1897 어도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코 (장 7:12) 최신 편곡: 8.7.8.7.D.
 박재홍, 1967

보장으로

1. 지금 까 지 내 온 것 주 의 크 신 은 혜 라
 3. 후 님 님 시 의 화 을 하 나 님 새 로 아 님 의 은 혜 와
 하 늘 이 없 는 주 의 사 람 어 짝 이 를 후 들 하 락
 후 님 지 주 의 새 생 이 주 의 은 혜 를 후 들 하 락
 자 나 깨 난 주 의 손 이 하 나 님 새 생 이 를 후 들 하 락
 나 를 위 해 주 의 손 이 하 나 님 새 생 이 를 후 들 하 락
 모 든 일 을 주 의 은 혜 에 서 고 생 활 하 게 하 시 리 라
 주 의 손 의 주 의 은 혜 에 서 고 생 활 하 게 하 시 리 라

쉬운 기악코드(capo=3rd) E^b→C B^b→G Cm→Am A^b→F G→E Fm→Dm F7→D7

가족공동기도 다 같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앞날도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편 103편 1~5절 인도자

-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 씀 나 눘 감사를 기억하는 가정 다 같이

추석은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서로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명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한마디씩 전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지나온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우리 가족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 ◆ 가족에게 고마웠던 일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